

호남대, 서석고 1·2년 대상 전공체험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와 전기공학과·컴퓨터공학과는 최근 광주서석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전공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호남대학교 제공〉

조선대-우즈베태국립니자미사범대학 협정



조선대(총장 서재홍·사진 왼쪽)는 최근 우즈베태국립니자미사범대학과 상호 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조선대학교 제공〉

화순전남대병원 중·고교 '병원체험'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중·고교생들을 위해 마련한 '병원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진지한 자세로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순천경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



순천경찰서(서장 박승주)는 최근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 순천교통서장, 순천개인택시지부장 등 기관·운수업체 대표들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식을 가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주 근로정신대 할머니 알리기 경기도 저현고 동아리 '견달천의 비상'



지난 7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저현고등학교 '견달천의 비상' 동아리 학생들이 광주 양금덕 할머니(사진 맨 앞줄 왼쪽 네번째) 댁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제공〉

"치욕의 역사 반복 않으려면 '미래'인 우리가 기억해야죠"

‘조선여자근로정신대를 아시나요? 70여 년 전 일본에 끌려가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10대 소녀들, 1945년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위안부로 오인 받으며 징역의 세월을 지나 80대 중반의 할머니들이 됐습니다. 2007년 5월 한맺힌 세월과 상처를 딛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기업을 상대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투쟁에 나섰지만 일본 고등재판소에서 기각 됐으므로써 또 한번 상처와 좌절을 겪게 됐습니다. 오는 23일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근로정신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입니다. 이 재판에 국민들의 힘을 실어주세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근로정신대 응원 서명’의 일부분이다. 지난 2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5일 현재 1160명이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을 뿐이죠. 하지만 관심만이 우리의 역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등 서명운동에 공감하는 댓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승준(17)군은 경기도 고양시 저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이군은 “그동안 근로정신대 문제를 어렵듯이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들을 만난 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할머니들이 고령으로 돌아가면서 기억도 사라지고 있는데 아픈 역사지만 우리 모두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저현고등학교 학생들은 ‘견달천의 비상’이란 동아리를 만들었다. 고양시를 흐르는 하천 이름을 딴 동아리는 이승준 학생 등 19명이 소속돼 있다. 학생들은 근로정신대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고양시의회 김경희의



온라인 서명운동 주도한 이승준 군.

원을 통해 근로정신대에 관한 강연을 듣고 안타까운 역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기로 하고 교내 바자회로 경비를 마련해 지난 7월 13일 광주를 방문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민모임 관계자들과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고 5·18 묘역을 방문했다. 이군은 “근로정신대문제는 영상이나 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할머니들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며 “피해자들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 된다는 사실 때문에 죄송스러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군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지속적으로 돋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다. 먼저 SNS나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올린 응원 서명도 이중 하나로 향후 동영상 컨텐츠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팔찌를 제작해 수익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을 돋기 위해 판매 중인 ‘위안부 팔찌’는 ‘Blooming their hopes with you’(그들의 희망을 당신과 꽂피움)란 문구가 새겨져 젊은 층에서 일종에 ‘의식팔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에 지원고 학생들이 만든 근로정신대 팔찌는 ‘Don’t cry grandma’(할머니 울지 마세요), ‘We’ll never forget you’(할머니들을 잊지 않을게요)란 문구를 넣었다. 오는 15일에는 양금덕 할머니를 고양으로 초청해 희미해지는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군은 “근로정신대 이야기는 여전히 모르는 학생이 많은데 온라인이나 팔찌를 통해 알려 나가겠다”며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나자 더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고규석(코트라 전문위원)·정광숙씨 아들 영일군 정영준(해양도시가스 사장)·한미옥씨 딸 승민양=10일(토) 오후 1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지하 1층 하모니볼룸.

▲배귀대(경주배씨 광주종친회 부회장·재관 영암향우회 사무국장)·장길남씨 장남 융선군 정용채·김숙희씨 장녀 혜린양=10일(토) 오후 2시 STX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황의순(법무부 범죄예방 협의회 회장)·이정자씨 아들 민군 박병각((주)에이티에프 대표이사)·한화정씨 딸 주현양=10일(토) 오후 5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종친회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원구) 운영위원회 개최=7일(수) 오전 11시 50분 종회사무실(회관 3층) 062-228-336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 보호전문기관.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이동기자족 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

4370, 5308.

▲오토차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번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지자비 주제 등.

▲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 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5층) 062-652-0675, 010-8299-6237.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

모집

▲CAP(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교육 전문가=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아동특화프로그램인 CAP(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할 역량있는 일반인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062-385-1391.

▲아시아실버원도 오케스트라 회원=악기연주(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등) 등 텔레비전 출연자 개인지도 및 그룹·합주지도.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상 복구 거주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062-226-2030, 010-4906-8904.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정서코칭2급 교육 개설 안내=9일·10일·16일·17일 오전 10시~오후 6시.

대상은 교육에 관심 있는 분. 장소는 협회교육실(광주 북구 두암동 569-16 5층) 062-652-0675, 010-8299-6237. ▲다음카페-참된 나(?) 찾기 학교 무료 교육=우울증, 불면증, 두통, 불안심리, 이명, 환경, 활성화, 강박관념, 대인포장증, 가위눌림, 악몽, 자살충동, 신내림, 귀신들림, 정신질환, 신경성질환, 만성난치·금연금주, 악습·가족갈등, 비만·체질교정, 불생불사, 8

24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도 서관 5층, 양택·음택·수막·니정·입향문, 비결록명당, 장법요강 등 진정한 이론과 현장 영상 강의(책자무료 제공) 010-3609-8117, 062-670-2161, 2135.

▲한국노후생애대학원학교 7기 학생 모집=장수시대에 50세 이상 중장년이 퇴직 후 자기계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준비를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 교육과정은 노후생애 설계, 생활영역, 한시, 웃음 치료, 노인상담심리학. 대상은 노후준비 희망자, 열정있는 중장년, 건강한 은퇴자(선착순 35명) 원서접수 21일(수) 오후 5시까지(합격자 발표 26일 개별통지) 062-223-1357, 010-2646-5023.

▲다음카페-참된 나(?) 찾기 학교 무료 교육=우울증, 불면증, 두통, 불안심리, 이명, 환경, 활성화, 강박관념, 대인포장증, 가위눌림, 악몽, 자살충동, 신내림, 귀신들림, 정신질환, 신경성질환, 만성난치·금연금주, 악습·가족갈등, 비만·체질교정, 불생불사, 8

나경은 아니운서 MBC 사직 표명



나경은 MBC 아니운서가 육아에 전념하고자 MBC를 떠난다. 광주출신인 그는 방송인 유재석의 아내로도 잘 알려져 있다.

MBC 관계자는 5일 “나경은 아니운서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아직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육아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석과 나경은 아니운서는 2008년 7월 결혼해 2010년 5월 첫 아들을 얻었다. 나 아니운서는 지난해 9월 1년 동안의 육아 휴직을 끝냈다. 이달 복귀가 예정돼 있었다.

지난 2004년 MBC 공채 아니운서로 입사한 나 아니운서는 ‘선택TV 연예통신’ ‘강력추천 토요일’ 등을 진행했으며, 유재석이 메인 MC를 맡은 ‘무한도전’에서 목소리로 출연해 MBC를 이니셜로 끌어낸 ‘마봉춘’이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김진혁 전남대 교수, 정부지원 태양전지 연구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김진혁 교수가 최근 정부로부터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자기고효율 박막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김 교수(광전자 박막 연구팀)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인력·자본 확대와 R&D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미래 선도 인력양성 과제(GET-Future)’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교수팀은 앞으로 3년간 ‘저가 화합물 박막 태양전지 GET Future 연구실’을 운영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안동구 조선대 교수 한국산학연협회 이사



안동구 조선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최근 산학연광주지역협의회장 겸 (사)한국산학연협회 이사에 선임됐다.

산학연광주지역협의회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광주지역 6개 대학의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장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협의하고 총괄하는 협의체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백석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복지시설에 차 2대



광주 개인 고액기부자(1억원 이상)아너소사이어티 3호 회원인 백석(48·사진 오른쪽 세번째) 세무사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2대를 기부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5일 백 세무사가 광주 북구청에 이동 불편 약자를 위해 써달라며 5000만원 상당의 승합차 2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모금회는 기부한 차량을 북구장애인 다원주간보호시설과 동구 광주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에 지원했다. 백 세무사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2대씩을 기부, 총 6대의 차량을 지원했으며 독거노인 짜장면 대접, 김장김치 지원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백석 세무사는 “힘든 여건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돋드려 어머님의 뜻을 이어받아 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무더운 여름 조급이나마 편하게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장기 故人의 慎福을 빙니다